

수석합격기
[제53회 사법시험 수석합격]

평범함 속에서의 몇 가지 특별한 것



김 수 민

- 1987년 4월 생
- 경북여자고등학교 졸업
- 경북대학교 법대 4년 재학
- 제53회 사법시험 수석합격

I. 들어가며

대단할 것 없는 제가 시험 합격을 한다고 해도 합격수기를 쓸 생각이 없었기에 갑자기 수기를 쓰려니 부끄럽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수기를 몇 편 봤는데 다 비슷비슷하고 같은 기분이더군요. 저를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법학에 대한 깊이가 부족하다는 것을 먼저 밝히고 싶습니다. 정말 특별할 것 없는 수기이지만 오히려 평범하게 공부하고도 합격할 수 있고 그것이 힘이 될 것 같아 써 봅니다. 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부족하고 얕은 내 지식이 탄로나게 되어 부끄럽지만 지금도 밤을 새우며 열심히 공부할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까 싶어 시시하고 진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II. 제1차 공부

1. 모강 전 (2008.9~2009.8)

처음에는 방향을 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외워야 할지,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자세히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두꺼운 책 앞에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학회에서 짜준 스터디에 들어가 민법공부를 시작했지만 결석도 잦았고, 공부에 빠지지 못했습니다. 12월, 합격하신 학회 선배님들께서 후배들을 위해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때부터 공부에 재미를 느끼고 책을 파고들었습니다. 1차생들을 위한 강의였지만 사례문제를 풀어주시면서 여러 쟁점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재미있었는지 그 때부터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선배님

들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본서는 민법은 김형배 교수님 저, 형법은 신호진님의 형법 요론, 헌법은 정희철님의 헌법강의를 선택했습니다. 그 당시 김형배 교수님 저로 공부하는 사람이 적어 주변에 걱정도 많았지만, 책을 잘 바꾸지 않는 성격 때문에 끝까지 그 책들로 공부했습니다. P2P사이트에서 헌법과 형법 기본강의를 구해 들었고 저녁에는 그 부분을 다시 읽으며 그렇게 겨울방학동안 헌, 민, 형을 1회독했습니다. 3월부터는 학교수업을 듣고 새로운 스터디 그룹에서 1회독을 하였습니다. 학교 고시반에 자리를 잡고, 수업 후에 돌아와 매일 진도 부분을 읽었습니다. 아직 체계가 잡혀있지 않았는데 조장님께서 기출문제 위주로 매일 만들어 오신 OX문제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방학 후 더욱 본격적으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사람들 몇몇이 모여 아침에 출석체크를 하기도 하고 하루에 얼마나 공부하는지 내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민법을 권순한 객관식 판례로 보충하라는 말을 듣고 책을 샀습니다. 보기를 가리고 매번 연습장에 OX로 풀어보면서 판례에 대한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형법은 요론만 보면서 전 해의 전 범위 모의고사 문제집을 사서 풀고 기본서에 보충할 것들을 메모했습니다. 헌법 판례집을 사긴 했으나 정리 못할 것 같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개의 판례를 골라서 보고, 궁금할 때마다 판례를 찾아보는 식으로 이용했습니다. 대신 기본서(헌법강의)로 정리했는데 책 전체에 흠어져 있는 판례 조각들을 뒤에 색인을 보고 페

이지와 어떤 기본권침해인지 일일이 메모했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볼 때 적힌 페이지를 펼쳐서 리마인드 했습니다. 추석기간동안 이론과 문제가 모두 있는 노동법 책을 사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풀릴 때까지 집요하게 파고드는 까다로운 성격 탓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진 못했습니다. 책을 뒤져보고, 판례 원문을 검색했었는데, 판례를 찾으면 궁금한 것이 대부분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붙잡고 있던 것을 해결할 때마다 느끼는 희열이 공부를 재미있게 해 준 것 같습니다.

2. 모강 기간 (2009.9~2009.12)

2학기 시작할 때엔 좀 더 집중하고 싶어 휴학을 했습니다. 바로 1차 시험을 합격하고 최소 재시만에 2차 합격할 것을 작정하였기 때문에 2년을 휴학했습니다. 모강을 신청했고, 모강과 상관없이 스터디를 했습니다. 스터디 진도를 모강 진도보다 빠르게 계획해서 공부하고 며칠 뒤에 진도를 풀어 확인하고 다시 암기하는 식이었습니다. 모강을 공부한 것을 확인하는 식으로 풀고 점수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엄격한 스터디였기 때문에 진도가 밀리지 않았고, 진도가 밀리지 않아 스트레스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스터디에서 서로 쟁점에 대해 얘기도 해보고 두문자를 공유했습니다. 여름방학 때까지만 해도 모의고사를 치면 평균 50점을 넘지 못했는데, 여름방학 때 공부했던 것이 실력을 키웠는지 가을엔 70점 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단식으로 성적이 오른다는 게 맞는가 봅니다.

3. 모강 후 (2010.1~2010.2)

겨울방학 때는 이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학교 기숙사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때 같은 방 쓰던 친구와 점심시간 때 서로 퀴즈를 내기도 하면서 위로도 하고 견제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 어머님께 서도 많이 힘을 주셨습니다. 맛있는 걸 나눠먹고 12월31일도 같이 보냈는데 행운의 룸메이트 인 것 같습니다. 기숙사 건물에 층마다 테이블 두 개만 있는 열람실이 있었는데 사람이 잘 들어오지 않아 거기서 혼자 중얼중얼 대면서 암기를 하고 마음대로 스트레칭하면서 잠을 쫓았습니다. 매일 전범위 모의고사를 1회씩 풀면서 감각을 유지하였습니다. 스터디에서는 각자 OX문제를 만들어 와서 서로 바꿔가면서 풀 뒤 풀찌가 자판기 커피내기를 했는데 지루한 수험생활에 잠시나마 웃는 시간 이었습니다. 시험 전엔 5, 3, 1로 계획해서 지켰습니다. 특히 시험 전에 5년 치 정도의 기출문제를 실제 시험지 형태로 뽑아서 시험처럼 풀었습니다. 기출문제는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틀리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기출문제를 2번 풀고 틀린 것을 반복했습니다. 이 시기엔 시간이 아까워 이동할 때나 잠이 안 올 때엔 판례가 녹음된 mp3파일을 들었는데, 2차 수험기간에도 애용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것은 차이가 있으니까요.

4. 제1차 시험날

시험전날 남들이 하는 대로 가족법과 선택법을 봤습니다. 시험 날 원래 긴장을 안 하는 편이라 밥도 다 먹고 디저트

까지 챙겨먹었습니다. 시험 치러 가는 시간에 아버지는 자고 있을 정도의 약간의 집안의 무관심이 절 더 편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 시험을 치면서 민법이 너무 어렵다 느껴 조금 당황했습니다. 남들은 잘 치면 감이 온다고 하는데 저는 아쉬운 기분만 들어 집에 와서 잠만 잤습니다. 일어나서 채점해보니 괜찮은 성적이라 아버지를 허락을 받아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III. 제2차 공부

1. 예비 순환 (2010.3~2010.6)

처음 한 달은 언니가 있는 다른 곳에서 신림동까지 출퇴근했는데 힘이 들어 결국 언니와 함께 신림동으로 이사했습니다. 초시 때 합격한다는 것이 과욕이기는 했지만, 학원비, 독서실비를 받아 쓰고 언니가 힘들게 출퇴근하는 걸 보니 부끄럽게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비순환강의를 들으면서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민법 사례집도 사고 형법도 본다고 책을 샀지만,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강의를 듣고 진도 부분을 공부하는 방식은 똑같았습니다. 예비순환 일정은 후 사법이 전부였는데 강의가 끝나니 시험날짜는 별로 남지 않았고 결국 현, 민, 형은 강의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험을 치고도 완전히 못 쳤다는 느낌이 적어 (뭘 모르기에 든 생각일 것입니다) 기대도 했었습니다.

2. 제1순환(2010.7~2010.11)

1순환 때부터 스터디를 했습니다. 계

시판에서 글을 보고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스터디였는데 꽤 오래 같이 공부했습니다. 민법교안 사례를 2~3문제씩 풀고 얘기해보는 식이었는데, 그것이 민법에 자신감을 높여준 것 같습니다. 형법 사례도 보긴 했으나 주로 민법을 봤고, 전 해의 모의고사를 구해 풀어보기도 했습니다. 언니, 오빠들의 조언과 가르침으로 (저는 의견을 내는 쪽은 아니었습니다) 많이 배웠고, 스터디 시간을 휴식시간이라 생각하며 즐겁게 공부했습니다.

1순환을 미지근하게 보내고, 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의 쓴 맛을 보고 나름의 방향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우스운데 욕심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때 합격했다라면 세상을 얼마나 우습게 봤을까 싶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책정리가 시작 되어야 할 때에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단권화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따로 노트도 만들지 않았고 두꺼운 책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예비순환은 교수님 책으로 본 것이 많았는데 1순환부터 강사님이 수업하는 책으로 하다 보니 거의 다 수험서였습니다. 저는 헌법, 형법을 빼고는 두꺼운 이론서로 정리했습니다. 그래도 '독합' 때문에 막판에도 이 책들로 순환을 반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사례집을 샀으나 따로 정리를 하진 않았습니다. 3순환 때까지 기본서를 읽고 사례집으로 목차를 잡으면서 공부했고, 잘 안되는 부분에 플래그를 붙여두어 3순환 이후엔 그 부분만 봤습니다.

2. 제2순환 (2010.12~2011.2)

2순환은 어느 정도 이론을 익힌 과목은 모의+강평반을 듣고 그렇지 않은 과목은 강의반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아까웠고, 그 과목들은 사례집으로 정리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모의+강평반을 듣고 공부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스터디도 계속했습니다. 매번 제 시간 내에 시험을 다 치지 못했지만, 다음날 채점평이 나오면 읽고 다시 한 번 제 답안을 보면서 스스로 첨삭을 했습니다. 2순환 후반부부터 학원에서 도우미로 일하면서 수업료를 아꼈습니다.

3. 제3순환 (2011.3~2011.5)

3순환이 시작될 때 쯤에 약간 힘들었습니다.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고, 3순환이 시작됐는데도 아는 게 없다는 생각에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선배님들께서 마지막에 순환을 빨리 돌릴 때 쯤에야 이해가 갈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들 공부 안 된다고 힘들어하던 때여서 '그런 기간이구나'하고 많이 힘들어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민법의 중요성을 익히 들어 3순환 마칠 때까지도 매일 1시간~1시간 반 정도로 할애했습니다. 점심 특강도 들었습니다. 시험 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60분내에 끝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꼭 시간 맞춰 작성하는 연습을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보통 일요일엔 쉬는 편이라서 평일에도 일요일만을 기다리며 참고 공부했지만, 3순환 시작하면서는 급함에 일요일에도 나와 공부했습니다. 진도가 없는 날이기에 평소 부족

하다고 느꼈던 행정법 사례집이나, 어음 수표법 사례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학원 오고 가는 길은 작은 암기장과 함께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그 날 본 조문을 자기 전에 훑으면서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조급함에 질문도 많이 해서 시험 일주일 전에도 메일로 강사님을 괴롭혔던 기억이 납니다.

4. 제3순환 이후 (2011.4~2011.6)

날짜가 촉박해서 민법을 3일정도 당겨 빨리 끝내고 3,2,1로 계획을 짜서 막판 스퍼트에 돌입했습니다. 계획을 지키는 것이 스트레스 덜 받는 길임을 알기에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례집은 표시해둔 것만 보고 기본서 위주로 반복하니 가능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의고사 모아둔 것을 본 후 내 답안을 다시 한 번 체크하고 어려운 문제를 다시 풀어봤습니다. 4순환 문제도 구해서 풀었습니다. 주제, 쟁점을 보고 머릿속으로 학설, 판례 내용이 생각나는지 체크했고, 생각나지 않으면 책을 보고 다시 제대로 암기하려고 했습니다.

3순환 마칠 때쯤, 긴장이 돼서 인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2~3시에 누워 6시가 넘어 잠이 들 정도였습니다. 수면유도제도 먹어보고 안대도 껴보고 많은 방법을 써봤지만, 효과가 없어 차라리 밤낮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6시정도에 자다가 시험이 끝나는 4시 정도에 맞추어 잠이 들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엔 엉덩이 힘으로 버텼습니다. 양으로 밀어붙이는 편이라 시험 바로 전에는 16시간까지 한 적도 있었는데, 하루 종일 말한 것이 '아메리카노 한잔 주세요'

였을 정도였습니다. 밖에 나가기가 귀찮아 앉으면 잘 일어나지 않았었는데, 합격할 날을 상상하며 누구에게 먼저 전화하고 뭐라고 말할지 준비하면서 쉬었습니다. 운동도 안 했는데 버텨 제 체력이 신기하죠.

5. 제2차 시험기간

헌법에 너무 자신이 없어 전날에도 헌법만 봤습니다. 덕지덕지 붙여 놓은 포스트잇까지 훑고 시험장으로 갔습니다. 택시를 이용했는데 편하고 좋았습니다. 시험기간에도 집에 와서 바로 자고 9~10시 정도에 일어나 공부했습니다. 애플 등의 약물을 사용해본 적 없어 시험기간에도 평소대로 잘 수박에 없었습니다. 따로 정리한 노트도 없어 두꺼운 책을 스킵하면서 정말 눈에 '바르는' 정도로 공부했습니다. 특히 상법과 민사소송법을 치기 전날은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인지 시험기간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되도록 다음날 과목 1회독을 확실히 하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가 남으니까요. 말했 다시피 시험에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어서 편안하게 시험을 쳤습니다. 언니가 싸 준 도시락과 초콜릿을 먹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1문을 다 쓰고 2문을 읽는 버릇 때문에 2문을 시작할 땐 50분 정도가 남았고 매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첫 시험인 헌법은 굉장히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민법 1문이 어려웠지만 이미 시간이 지난 뒤라 2문을 먼저 시작할 수 없었고, 생각나는 대로 1문을 써내려갔습니다. 헌법, 형법 때문에 시험에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 시

험 친 후 굉장히 엄살을 떨었습니다. 결과보고 욕하는 사람 많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비 오는 그 며칠의 기억이 기분을 묘하게 합니다.

6. 제3차 면접

2차 합격 발표 후 기쁨에 며칠은 구름 위를 걷는 기분으로 보냈습니다. 김유향 변호사님께서 수업시간에 지친 수험생을 격려하시며, “힘드시죠, 2차 발표날 때 집에 전화하면서 ‘합격했어’란 한 마디에 다 풀립니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합격했어’란 한마디에 다 보상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책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면접이 걱정되었습니다. 같이 합격한 언니와 매일 만나서 2시간 정도 질문을 하며 7법을 훑었고, 시사문제에 대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험가에서 나온 자료집도 보았고, 중요 현안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해서 내용을 익히고 논거를 준비하여 두었습니다(물론 준비한 것 중에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자유 아닌 자유였는데 약간은 배부른 소리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주변이 없지만 집단 토론에서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게 보였던 것인지 법률 질문은 많이 받지 않고 무사히 면접을 마쳤습니다.

IV. 마치며

별로 특별하지도 않은 글을 장황하게 썼는데 어디까지나 저의 공부 방법이었습니다. 각자 공부하는 스타일이 있을 것이고 자신에게 맞는 공부가 제일일 것입니다. 합격한 사람들과 얘기해보면 각자 본 책도 다르고 공부하는 방법도, 슬럼프를 이겨내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러

나 끝까지 공부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저의 이런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는 수기를 보며 뛰어난지 않아도, 특별한 거 없어도, 남들 하는 대로 하면 합격 하는구나라고 용기를 얻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수석인 건 정말로 운이었음을(점수를 보면 알겠지만), 그저 시험 날 상황에 따른 조금의 차이였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했기에 운이 왔다고 믿고 싶을 뿐이죠.

저보다 훨씬 실력이 좋은 사람이 많은데 제가 이런 영광을 차지해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제일 큼니다. 너무나 허술하고 깊이도 없는 제가 앞으로 배울 것이 많습니다. 많이 배우고 싶고, 많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공부한다는 핑계로 세상을 보지 못했는데 그런 눈도 키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싶은 마음 끝까지 지키고 싶습니다. 제가 겪은 조금의 어려움이 약자를 생각하는 좋은 법조인이 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 꼭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 내가 초심을 잃고 변하려고 할 때마다 많이 채찍질해주었음 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나 고생한 우리 가족, 많이 위로해 준 친구들, 학회 ‘법사랑’-특히 많이 가르쳐준 선배 동기들, 잦은 질문 답변해주신 강사님들, 그리고 나의 법 공부의 밑바탕을 만들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분들, ‘저도 하는데 당신들이라고 못 하겠습니까?’하며 자신감 잃지 말라는 말 하고 싶습니다. 꼭 이루어질 거예요.